



전남도당 정책 페스티벌, 뜨거운 참여 열기로 대 성황 당원 주도 상향식 정책 개발로 총선 승리 토대 ‘구축’

‘친환경 하상주차장 건설로 주차난 해소’(여수갑) 1위 선정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29일 오후 ‘전남도당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한 결과 ‘친환경 하상 주차장 건설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여수갑·고용진) 제안이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당원평가단에 의해 1위에 오른 ‘친환경 하상주차장 건설’ 정책은 9월 20일 열리는 전국 페스티벌에 출품돼 전국 17개 시·도당 1위 정책들과 다시 경연을 펼쳐 최우수 정책을 가리게 됐다.

친환경 하상 주차장 건설은 여수 연등천에 수생식물 보호를 위해 햇빛과 바람 등을 가리지 않는 친환경 주차장을 건설해 주차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안이란 평가를 받았다. 2위에는 목포의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박문옥), 3위에는 영암·무안·신안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김기만) 정책이 선정됐다.

책이 선정됐다.

남악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5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페스티벌은 정당 사상 최초로 당원 주도의 상향식 정책개발로 2020 총선 승리의 토대를 구축하고 정책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당은 각 지역위별로 지난 7월 28일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시작으로 문화관광, 지역경제, 지역돌봄, 청년고용 등의 분야별 분임 토론회를 거쳐 각 지역의 우수정책을 선정한 바

있다. 당원 평가단은 76명으로 구성됐으며, 평가방식은 무선투표기를 활용해 분야별로 배점하여 순위를 결정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정책 페스티벌은 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뜻이 담긴 정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채택된 정책은 내년 총선 정책으로 채택할 예정이며, 나머지 각 지역 대표 정책들도 중앙당에 건의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일본 수출규제 피해·예산확보 공동대응 나선다

전남도당-전남도 당정협의회…도청 서재필실(8. 27)
서삼석 도당위원장, 내년 예산확보 T/F 발족 등 제안



전남도당은 8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경선 도당 상임부위원장(도의원)

의 사회로 열린 협의회에는 서삼석 도당위원장, 김영록 도지사, 우기종(목포) 주철현(여수갑) 정기명(여수을) 서갑원(순천) 신정훈(나주·화순) 이용재(광양·곡성·구례)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이민준 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설명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한전공대 설립,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 등 23건의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달 개최한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결과를 설명하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

로젝트’ 추진을 위한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논의된 현안은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국가계획 반영 ▲국립 난대수목원 및 여수산단 스마트산단 선정 ▲완도~고흥 구간 국도 승격 및 국가계획 반영 ▲전라선 KTX 증편 및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는 수출규제 피해 현황과 주요 민생 현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새천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특히 관광산업을 통해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겠다”며 “당에서 적극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도당, ‘2020총선 승리를 위한 방방곡곡 경청투어’ 실시

지역현안·당 조직강화 의견 청취, 정책홍보 캠페인도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7월 24일 진도를 시작으로 도당 산하 10개 지역위원회를 찾아 ‘2020총선 승리를 위한 방방곡곡 경청투어’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 현안 청취 및 정책홍보물 배포 활동을 펼쳤다.

도당은 지난 7월24일 오후 진도군

의원 합동사무실에서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 김상헌 군의회 의장과 김인정·김춘화·박금례·이문교 군의원, 김갑봉 사무처장, 이경윤 정부조정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청투어’ 간담회를 실시했다.

윤재갑 위원장, 김상헌 군의장 등은

간담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진도분관 건립 국비지원 확보 등의 현안 사업과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하계수련회 실시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윤재갑 위원장과 진도군 선출직 공직자, 도당 당직자 등은 인근 상가를 돌며 ‘제로페이’ 실시

및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의 확대 적용 등을 담은 정책홍보물 배포활동을 벌였다.

이어 여수갑·을 합동간담회(25일·주철현 변호사사무실), 담양·함평·영광·장성(27일·영광농협)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26일 광양·곡성·구례에 이어 29일에는 순천(29일·순천생협요양병원 1층), 고흥·보성·장흥·강진(29일·보성 지방의원합동사무실), 목포(29일·지방의원 합동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31일 나주·화순지역 간담회를 끝으로 경청투어를 마무리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경청투어에서 제기된 지역현안 사업과 당 조직강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도당,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참여

지역위원장·선출직 공직자 대거 참여 DJ 인권·평화정신 기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 후광리 생가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우기중(목포)·주철현(여수갑)·정기명(여수을)·신정훈(나주·화순)·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윤재갑(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 이용재 도의회 의장,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전남도·신안군 의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도당 박현숙 여성위원장과 김갑봉 사무처장, 이경윤 정부조정실장을 비롯한 도당 사무처 당직자들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헌화 및 참배, 국민의례, 추모사, 추모시 낭독, 성악공연과

‘아르코 현악4중단’의 현악 4중주 공연 등이 이어졌다.

박우량 군수는 추모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화통일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면서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이 물결처럼 피어오르는 세상을 위해 인동초의 삶을 사셨던 대통령이 후대에도 영원히 기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안군은 김 대통령의 인권·평화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하의도에 천사상 미술관을 개관했으며, 신의도에는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의 미술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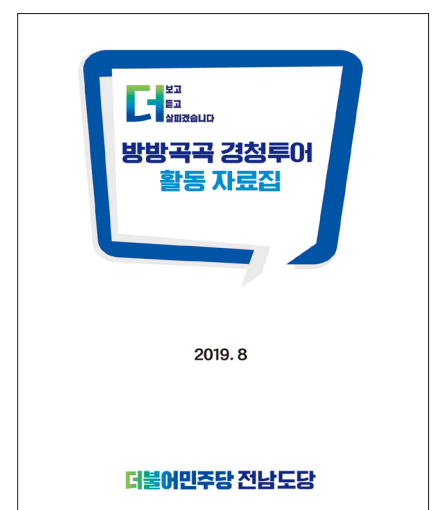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겠습니다”

방방곡곡 경청투어 자료집 발간

전남도당은 ‘민생현장에 찾아가는 전남도당’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22일 (월)부터 10일 간 실시한 ‘방방곡곡 경청투어 및 정책홍보 캠페인’ 활동 자료집 책자를 발간했다.

방방곡곡 경청투어 자료집은 A4 용지 34쪽 분량으로 활동 개요와 활동 지역(10개 지역위원회, 13개 시·군), 지역위원회 주요 건의사항, 정책홍보물 주요 내용, 활동사진 모음, 전남도당 1년 추진사업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 등 21명 당 예결특위 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총 21명의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간사는 전해철 의원이 맡는다

총 57명의 신청이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지역별 1명 이상을 기본으로 했고,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

예결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2) 심재권(외통), 기동민(북

지) ▲경기(3) 전해철(정무), 김상희(복지), 임종성(국토) ▲인천(1) 맹성규(복지) ▲강원(1) 심기준(기재) ▲충북(1) 이후삼(국토) ▲충남(1) 강훈식(국토) ▲대전(1) 조승래(교육) ▲광주(1) 송갑석(산자) ▲전북(1) 안호영(국토) ▲전남(1) 서삼석(농림) ▲부산(1) 최인호(산자) ▲울산(1) 이상현(문체) ▲경남(1) 김정호(기재) ▲대구(1) 홍의락(산자) ▲경북(1) 김현권(농림) ▲제주(1) 위성곤(산자) ▲비례(2) 이철희(법사), 권미혁(행안)

서삼석 도당위원장 취임 1주년

“서민과 사회적 약자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당원 교육연수 및 정책수립 기능 대폭 강화

지역 현안 및 여론 파악 ‘방방곡곡 경청투어’ 큰 호응



지난해 6·13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8월 4일 도당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도당 활동사항을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2020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지난 해 담양 문예회관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 및 개편대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도당 위원장에 추대됐다.

서 위원장은 당시 취임 인사말을 통해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겠습니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원과 도민,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그동안 도당 역점 사업으로 당원 교육연수를 대폭 강화하여 ▲선출직 공직자 및 핵심당원 연수 권역별 실시(3회) 및 정례화 ▲신입당원 교육연수 실시(11회)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무연수 ▲여성당원 전문 교육과정 ▲정치 아카데미 개설 및 정례화 등을 실시했다.

이어 당원 및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당 구현을 위해 ‘더불어봉사단’(단장 박현숙 여성위원장)을 발족하고 농촌 일손돕기(양파 및 감 수확) 및 자연정화 활동, 도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사랑의 김장·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등을 도내 곳곳에서 꾸준히 펼쳤다.

이와 함께 도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위원회 순회 ‘방방곡곡 경청

투어’ 실시 ▲2020총선 정책토론회 및 여수산단 대기환경 개선 토론회 등 정책토론회 수시 개최 ▲전라남도과 일

선 시·군과의 당정협의회 정례화 ▲당원과의 소통 창구 및 정책 홍보를 위한 당보 ‘더불어광장’ 발간 ▲지역위

정책실장 연석회의 개최 등을 제도와 했다.

또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선출직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여성 비하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당 윤리규범 실천결의대회를 도의회 및 22개 시·군의회별로 일제히 실시했다.

이어 선출직 일탈행위 징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도당 차원의 당원 배가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열악한 타 시·도당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였다.

농수축산업 및 여성 농어업인 관련 법안의 대폭 재·개정안 발의, 섬 주민 교통편의 증대 관련 법 및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 생산비 보장 관계법, 천일염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 등을 추진하고 전남의 현안에 대한 정책 제시와 관련 법안 발의 추진 및 관련 토론회를 월 2회 꼴로 정례화하여 개최하였다.

서 위원장은 “소금처럼 정직한 땀과 열정으로 서민과 소수 약자, 농수축산인들이 잘 사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살피고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해 호남 유일의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남과 광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바 있으며, 올해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일본 경제침략 및 아베규탄 결의대회 곳곳 확산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당과 각 지역위원회도 일제히 아베 규탄 및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규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당은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개최한 전라남도와의 당정협의회에 앞서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김영록 도지사, 우기종 위원장(목포)을 비롯한 각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경제보복 규탄 퍼포먼스를 펼쳤다.

목포지역위는 지난달 10일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당원 200여 명이 참석, 일본경제 침략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의 위기

앞에 여야좌우가 따로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베정권이 아무리 위기를 조장하고 보수 세력이 부화뇌동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건강하며 건재하다”고 일본을 규탄했다.

영암·무안·신안과 여수갑지역위도 지난달 12일 남악 도당 대회의실과 여수상의회에서 각각 열린 ‘정책페스티벌 분임토론회’에 앞서 ‘아베 규탄 및 수출규제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영암·무안·신안 결의대회에는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김 산 무안군수, 조정기 영암군 의장, 이정은 무안군의장, 김용배 신안군의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핵심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서민
자유무역 체제 근간 파괴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규탄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안전보장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더 이상 우방국가 아니라는 선언이자 WTO 자유무역 체제를 전면 거부하는 ‘폭거’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앞으로 1천100여 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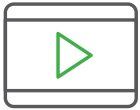
사실상 ‘한국경제’를 쥐고 흔들려는 경제침탈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일본은 이번 조치로 동북아의 역사를 다시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100년 전에는 총칼을 앞세워 한국을 침탈하고 식민지화 했다면, 이번에는 무역거재를 무기로 삼아 우리나라의 경제 생태계를 파괴

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침략자 본성’을 드러낸 일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또 다시 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명백한 경제보복임을 밝히고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경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아울러 일본이 정치외교 문제에 통상 무기를 끌어들이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려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도민·당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2019. 8. 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정책(순천/박종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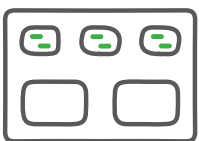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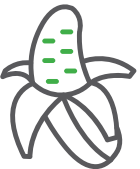
그 중심에는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바탕이 된 문화콘텐츠 산업이 있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크리에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공간·장비 등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한다. 고용 창출과 지역 랜드마크화가 가능한 콘텐츠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지자체와 지역기업 홍보비 절감 ▲지역관광 산업 발달 및 인구유입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페스티벌, 우리 지역 대표정책은?

'전남도당 정책페스티벌'이 지난달 29일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5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여수갑의 '친환경 하상주차장 건설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정책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이날 경연을 거친 각 지역의 대표 정책들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성공 정책 제안

(고흥보성·징흥강진/백광철)

전남의 미래 먹거리는 문화와 관광이다. 수려한 다도해의 섬과 리아스식 해안을 연결하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장흥 수문~고흥 녹동 간 연륙교 건설을 제안한다. 장흥과 고흥반도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건설되면 현재 국도 77호선을 통해 100km의 거리가 10km로 90km가 단축되고 목포와 여수와 두 지역의 거리도 획기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농수산물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또 남도답사일번지 강진과 녹차의 고장 보성을 포함한 전남 중부권의 4개 군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과일간식 전국 확대

(나주·화순/이재창)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와 저변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과일간식의 전국 확대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사과·배 등 6대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청소년 비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일간식의 만족도와 아동건강 증진 등의 성과가 속속 확인되고 있으니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과일간식 정책이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과일간식의 효과로는 청소년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 농가소득 증대, 고용창출 등을 들 수 있다. 좋은 정책 하나가 세상을 바꾸듯이 친환경 과일간식 확대보급으로 청소년 건강,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기를 촉구한다.

공정한 학교급식 기회 제공

(광양·곡성·구례/김수정)

학생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인 식단을 제공하는 현재의 학교급식 제공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급식은 고탄수화물·저단백질·저지방 식단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문제와 함께 알레르기과 아토피·과체중 등 학생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알레르기를 경험했거나 알레르기 식품 제한이 필요한 학생의 비율은 20%로 집계됐다. 이런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것을 제안한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소비할당제 도입

(해남·완도·진도/윤상일)

최근 태양광 발전소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자연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란 장점이 있는 반면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하거나 경작지 등에 건립해 농지를 잠식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할당제를 도입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을 생산해 에너지 낭비를 막고 환경파괴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친환경 하상 주차장 건설로 원도심 주차난 해결(여수갑/고용진)

여수는 최근 3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관광객과 시민 불편이 심각하다. 주차난 해소를 여수 원도심의 연등천에 1개소 당 100~200면 주차가 가능한 친환경 주차타워 4~5개소 건립을 제안한다. 하천 완전 복개는 지양하고 공기유통과 햇빛이 드는 하상 주차장을 수생식물이 적고 폭이 넓은 하류지역에 건설하면 환경도 보전하고 주차난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토지 보상비 등의 과도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건설이 가능하며, 하천 인근 전 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영암·무안·신안/김기만)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 비축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배면적 등에 상관없이 가격파동이 되풀이되고 있어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확대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따라서 앞으로는 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비용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고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된다.

지자체간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

(목포/박문옥)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돼 광역화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모색이 시급하다.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 생활권·경제권·행정권 등에 따른 공유경제 정책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간 경제권 통합 ▲교통 의료 복지시설의 지자체간 공유 및 광역화 ▲지자체간 공동사업 예산 우선 배정 ▲광역 경제권 설정 및 광역사업 공동개발 ▲행정업무 통합, 조직의 슬림화 등이 필요하다.

출산장려 정책

(담양·함평·영광·장성/박준엽)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로 생산인구는 빠르게 줄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민연금 수령자만 늘고 있는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 있다. 2019년 현재 출산율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 대 국가가 됐다.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의 여유가 없고,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도 제각각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1명 출산 시 5천만원 무이자 대출 ▲2명 출산 시 원금 2천만원 탕감 ▲3명 출산 시 원금 3천만원 탕감 또는 1명~3명 출산 시 18평, 21평, 25평 주택 지원을 제안한다.

고령화 1인가구 시대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여수/김소리)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2025년 1인가구 비율이 31.3%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 50대 중년층으로 나타나 노년층 중심의 고독사 방지대책의 개선이 시급하다.

고령화 및 1인가구 시대에 고독사 예방과 노인 케어를 위한 서민임대주택 정책을 ▲1인가구를 위한 공동식사 공간 제공 ▲빈집 활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1인가구 우선 대상 ▲노년층 맞춤형 설계 등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라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일본 조치 관련 사실 관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3개 품목 수출 규제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7월 4일부터 동 품목에 대해 규제 실시
 • 백색국가 배제는 7월 24일 의견 수렴을 종료하고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키로 결정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규제 근거는 계속 변경

- 7월1~6일 : 징용문제, 청구권 협정 위반
- 7월 7일 : 불화수소 북한 반출
- 7월 12일 : 캐치올 규제 미비 등

• 백색국가 배제 근거로 제시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 제도 한국 미 도입” 등도 사실과 전혀 다름

일본 조치의 문제점

■ 조치 근거 불명확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

- “양국 간 신뢰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7.7)과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화함
- 이는 수출규제 조치가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방증
-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불충분을 지적하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음
-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제도의 모범 회원국으로 선진적인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
- 한국은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엄격한 제도적 틀을 구축(대외 무역법, 수출입고시, 국제평화고시)
- 백색국가 중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협의체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도 없음

■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는 나쁜 선례로 작용할 우려

- 일본은 그간 WTO, G20, APEC 등 다자 포럼에서 ‘규범 기반 다자 무역체제’의 유지·발전을 주장하며 우리나라와 함께 노력해왔으나 최근 조치는 그간 일본의 행동과 상충됨
-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일본이 주장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구축”이란 정신에도 불합치

■ WTO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보복조치

- 일본의 조치는 양국 기업의 선량한 거래를 방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되고, 무역과 국제 협력을 방해하는 측면에서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에 위배
- ※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제1조 4항)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여 적용하거나 선량한 민간 거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제1조)은 “생화학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에 관계없는 생화학물질의 무역과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

■ 또한 WTO, GATT 제11조는 관세, 조세 및 부과금을 제외한 일체의 수출입 제한조치를 금지하며, WTO, GATT wp1조는 모든 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

■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심각한 피해 예상

- 핵심 소재 공급 불확실성 증가로 한국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
-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IT·전자기업에 이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 가능성 증대
- ※ 159개 품목 관련 주요 영향 업종 :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
- ※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를 비롯한 미국 ICT산업 중심 6개 경제단체는 일본 조치에 대한 우려 표명(세계 경제에 손해 야기 가능) 및 분쟁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서한 송부(7.23)

■ 이번 조치는 한일 간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

- 한국 정부는 일본의 첫 조치 발표(7.1) 이후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국제기구에 공동조사를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
-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 차별적 무역보복 조치 재차 강행(8.2)
- 그동안 분업·협업 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

우리 정부의 입장

■ 일본 조치에 깊은 유감 및 철회 촉구

- 8월 2일 일본의 결정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

- 일정 시한을 정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협상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불응
-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해 정당한 근거없는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

■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대화할 의지

- 대응·맞대응 악순환 불원
-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의 발전을 지원해온 우방국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이웃
-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일본은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하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양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

■ 국제사회에 관심 촉구

- 일본의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식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해야 함
- 정치적 근거를 동기로 무역규제를 취하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다른 나라들이 관심·우려를 갖고 주목하도록 노력

■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 지원

-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애로 접수 및 맞춤형 지원
- 주요 품목 물량확보 및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 원 추경 반영 및 세제 부담 완화
-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와 정책금융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

■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 10여 개 전략 핵심품목 R&D 혁신 및 기술개발 집중 지원
-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 공급망 구축
-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

서삼석 의원, 농산물 수급정책 문제점과 개선대책 토론회

서삼석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산물 수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이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개선 방안’, 최병옥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요 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의원은 “수확기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매년 가격 폭락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농산물 수급불안 해법 마련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 ‘2019 한국사회를 빛낸 충효대상’ 대상



서삼석 의원이 ‘2019 한국사회를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 의정부분 해양수산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사회를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조직위’ 주최로 지난달 23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어민 권익을 보호하고 소득증진을 위한 활동 공로로 대상을 수상한 서 의원은 “일본의 보복 무역 등으로 나라밖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농어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 전남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격려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14일 진도 가계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전남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 농업과 농업경영인들의 발전을 기원했다.

‘전남의 미래는 농민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첫째 날 시군 화합의 밤 행사에 이어 둘째 날에는 미래농업 발전 대토론회와 환영식 및 우수농업경영인 표창을 통해 10개 분야 65명이 수상했다.

서삼석 의원, “농산물 가격폭락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할 정도로 심각”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총리·경제부총리 상대로 대책 강력 촉구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법제화 시급

“농산물과 천일염 가격폭락 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의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예결특위 2018년 정부 결산심사 정책질의(8.26/9.2/9.3)에서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과 천일염 폭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3일 이같이 말했다.

이날 비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서 의원은 “인권위는 지난 4월 복지부와 농식품부를 상대로 농촌 노인의 인권증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면서 “차후에는 노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 나아가 섬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 역시 인권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지난 두 번의 결산심사 회의에서 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가격 폭락 해법으로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제시했음에도 답변이 미온적이었다”면서 재차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제123조 제4항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도모를 통한 농어민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농산물의 수급은 이제는 농어민의 인권과 권익의 문제이다”라면서 “인권 차원에서도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보전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국회분원의 세종시 이전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인구이전과 생산증가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만큼 국회 분원에 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용수 부족 지역, 정부가 의무 지원을”

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밝힌 2016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 수요량보다 19억㎥ 많은 260억㎥로 전망됐지만 농업용수는 연간 1억7500만~3억8600만㎥ 정

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이후 농업 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도서 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림부 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

를 하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용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는 예산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어업인 생계 보장 등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 천일염 생산어가 생존권 대책 마련 촉구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달 29일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천일염 생산어가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가격안정과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천

일염의 재고량이 적정량인 2만 5천톤의 10배가 넘는 25만2천톤에 이른다. 재고량 급증으로 저장 공간조차 구하기 힘들고, 사상 유래 없는 가격 폭락으로 줄도산 사태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123조 제4항에

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헌법상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며 “천일염 생산어가들의 절규어린 요구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지역위원회 정책제안 토론회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1위 선정



목포지역위원회(위원장 우기종)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목포시민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10일 해양유물전시관 교육관에서 우기종 위원장과 김종식 시장, 김휴환 시의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권리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토론회 후 팀별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투표 결과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1위로 선정돼 도당 정책 페스티벌에 출품됐다.

분야별 토론회는 ▲문화관광 조옥현(도의원) ▲생활안전 최선국(도의원) ▲지역돌봄 전경선(도의원) ▲교육환경 이혁제(도의원) ▲지역경제 박문옥(도의원) ▲주거환경 박용식(시의원) ▲소득불평등 박창수(시의원) ▲도시공동화 박용(시의원)이 팀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도했다.

토론회에 앞서 목포지역위는

일본경제침략 규탄 결의문을 통해 “국가의 위기 앞에 여야좌우가 따로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베정권이 아무리 위기를 조장하고 보수 세력이 부하노동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건강하며 견재하다”고 일본을 규탄했다.

우기종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처음 실시한 분임토론회가 다소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도·시의원 및 당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기종
목포
지역위원장

우기종 위원장, 목포 문화재지킴이 창립 1주년 축하

우기종 목포지역위원 지난달 29일 국립해양유물연구소 시청각실에서 열린 ‘목포 문화재지킴이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고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소외된 문화재를 찾아 지속적으로 가꾸고 있다.

기념식에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김휴환 시의회 의장이 함께 참석했다.

우기종 위원장, 제1회 전국 섬 주민 대회 참석



우기종 목포지역위원장은 지난달 9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섬주민 대회’에 참석해 “섬의 가치를 재발견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섬주민 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섬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섬 생활의 애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470여 유인도를 대표하는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섬의 접근성 개선 등 섬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국섬주민협의회 선언문’을 채택하고,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우기종 위원장, ‘에너지의 날’ 목포 행사 참석

우기종 지역위원장은 ‘에너지의 날’을 맞아 지난달 22일 북향노을공원에서 목포에너지시민연대와 녹색목포21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6회 에너지의 날 목포 행사에 참석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 체험부스, 환경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밤 9시부터는 목포시청과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소등 행사가 진행되었다.

우기종 지역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참석



우기종 목포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서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추모식에는 우기종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위원장들과 전경선·조옥현·이혁제·박문옥·최선국 도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우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은

민생, 민주, 평화, 세 가지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다”며 “나라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보편적 인권 향상을 위한 고인의 노력은 세계의 귀감이 되었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정신과 비전을 생각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10주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목포지역위,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캠페인

“중소상인은 수수료 부담 줄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목포지역위원회(위원장 우기종)는 지난 7월 29일 목포동부시장 상가를 돌며 제로페이가 활성화를 위한 ‘여기 제로페이가 되나요’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전경선 도의원(도당 상임부위

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 14명은 동부시장 일대 상가에서 제로페이(ZERO PAY) 확산을 위한 거리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조옥현 도의원은 “중소상인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등 상생하는 ‘제로페이’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지역위원회는 제로페이 홍보 행사 전, 동부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주철현
여수갑
지역위원장

여수갑 지역위, 제로페이 캠페인



여수갑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당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여서동 일대에서 '제로페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주철현 위원장과 서완석 시 의회의장, 강문성 도 도의원, 강현태·김승호·이미경·전창곤 시의원과 당원 등명이 참석했다.

주철현 위원장, '일본 군국주의 민낯' 사진전 참관



주철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오후 여수시의 회 로비에서 열린 권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일본 군국주의 민낯'이라는 주제의 특별사진전을 참관했다.

여수지역 30여 민간단체 공동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일본이 경제도발을 감행한 민감한 시점에서 일본 극우세력들의 본 모습과 군국주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주철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본 극우세력과 군국주의의 근본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작금의 사태를 이기는 힘이 생긴다"고 사진전의 의미를 되새겼다.

생활공예한마당 개막식 참석

주철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여수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제1회 여수남도생활공예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공예작품을 감상하고 지역 공예인들을 격려했다.

16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행사는 여수시공예협회 주관으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공예품들이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여수갑·을지역위- 여수시 하반기 당정협의회 개최

국·도비 확보 '박차'...양 지역위원장, 여수 시장 등 60여명 참여

여수갑·을지역위원회와 여수시가 최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두 번째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철현 여수갑지역위원장, 정기명 을지역위원장, 권오봉 시장, 도·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건설 ▲권역별 재활병원 등 2020년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을 논의했다. 더불어, 이순신도서관, 어르신문화체육센터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지금은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갑·을 지역위원회에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갑지역위원장은 "시와 시의회, 당이 협력해서 여수



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발전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세 기관이 협치로 의견

여수갑지역위 '정책 페스티벌' 개최...12일 여수상의

도심 주차문제 해결, KTX 송정-여수구간 신설 정책 1위 당원·시민 지역경제 등 21개 분야 정책건의...도당·중앙당 제언



여수갑지역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페스티벌' 결과 지역경제 분야 '구도심 주차문제 해결'과 'KTX 송정-여수 구간 신설'이 최우수 정책으로 채택됐다.

여수갑지역위는 지난달 12일 오후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

에서 권리당원 및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페스티벌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동항 재정비 및 돌산 신기

항 국가어항 지정 등 총 21개 정책이 제안됐다.

지역경제 분야는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연등천 활용 ▲KTX 광주송정-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 생활안전 분야는 ▲산재전문병원 설치 ▲여수산단 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제안됐다.

다문화 분야는 ▲어린이집·초등학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문화체육 분야는 ▲어르신 인지치료 지원 ▲전라선 옛 철길 활성화 현수운동,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이행 분야는 ▲청년

여수갑지역위, 제1차 핵심당원 워크숍

여수갑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화순 백야산 자연휴양림에서 당원 및 당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당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더위도 한풀 꺾인다는 '처서'를 맞아 당원들은 이날 선선한

저녁 바람을 느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열띤 정책 토론을 벌였다.

토론 주제는 여수시와 시의회의 갈등 해결 방안, 당정협의회 개최시 갑·을지역위 통일된 의견 제시, 가짜뉴스 대책 특위 구성, 여문지구 활성화에 대해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여수갑지역위는 워크숍에서도 출된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하고, 정책공약 채택과 조직강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철현 위원장은 "소중한 의견 많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더 단단히 뭉치자"고 당부했다.



을 모으고, 상호 소통시스템을 공고히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명 을지역위원장

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 국도비 건의사업은 중앙당과 도당, 국회의원, 도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돕겠다"

며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자주 당정협의회를 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 진상조사 범시민서명운동 선포

여수산단범대위 기자회견...7월 31일 여수시청 1청사 앞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7월 31일 시청 1청사 현관에서 '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 및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범시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대위는 이날 "시민들은 여수산단의 빈발하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생명과 안전을 우려하고 위협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지난 4월 17일 입주기업들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맹독성 유독물질 등을 불법 배출한 행위가 들통 나면



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업체의 명단과 위반 사실마저도 특정하여 공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 또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개탄하고

"강력한 투쟁과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회에 산단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각 기업의 공식 사과, 유해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여수을 정책 토론회

‘임대주택 맞춤지원 정책’ 1위로 채택

여수을지역위원회는 지난 달 10일(토) 오후 여수시 시전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페스티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 정책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당원이 만든 정책을 당원이 투표하고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당원중심의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실시됐다.

토론 분야는 문화체육, 생활안전, 지역사회 돌봄확충 등 10개 분야 분임토론을 거쳐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임대주택, 고령화와 1인가구 시대 맞춤 지원 정책'을 1위로 채택하여



도당에 제출하였다.

정기명 위원장은 "아래로부터 당원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청사진을 만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을지역위, 장등해수욕장 환경정화 캠페인

여수을지역위원회는 지난 달 17일 여수시 화양면 장등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매달 1회 정기적으로 벌이는 환경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에는 당직자 및 당원 50여명이 참석, 해수욕장 이용객이 버리고 가거나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였다.

정기명 위원장은 "환경정화 활동은 우리 지역의 환경을 정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단결하고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을지역위, '제로페이 활용과 소상공인지원정책 토론회' 개최



여수을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여수 흥국상가내 흥국문화배급소에서 '제로페이 활용과 소상공인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고희권·주종섭 시의원을 비롯한 여수소상공인연합회, 흥국·학동상가연합회, 진남시장·도깨비시장상인회, 여수사회적협동조합, 당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명 위원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늘 토론회가 지역경제를 지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을지역위, 청년위원회 발대식

여수을지역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여수시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의 비상, 희망찬 여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날 발대식에서 김소리 청년위원장은 "청년들의 희망연대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을 청년위원회는 이날 최근 유치원 3법 등 우리 사회의 신선하고 바른 변화를 위해 활동 중인 박용진 국회의원(서울강북을)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서갑원
순천
지역위원장

서갑원 위원장, 신한대학교 총장직 사임

서갑원 순천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경기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 총장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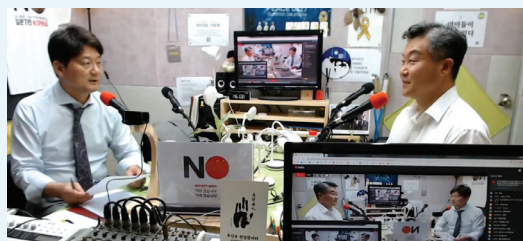
지역위 관계자는 “내년 21대 총선준비를 위해 지난 6월께 대학 측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대학 측은 9월까지 총장직 수행을 요구했지만 학기 도중 사임보다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서갑원 위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사회 밝혀

서갑원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별반 변한 게 없다”며 “여전히 시대와 나라는 대통령님의 해안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사회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작금의 남북관계, 한일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과 대안을 내놓으실지 기다려지는 요즘”이라며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전국에서나마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갑원 위원장, 팟 캐스트 방송 ‘새날’ 출연



서갑원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9일 팟 캐스트 방송 ‘새날’에 출연하여 ‘일본대신 순천으로 오세요’란 주제로 순천의 주요 관광지와 음식을 소개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음식은 여행하지 않는 법이다. 사람이 여행하자”고 강조하고 가장 좋은 음식은 제철 음식이고, 그 보다 더 좋은 음식은 ‘산지(產地) 음식’이라며 직접 순천으로 오셔서 진짜 좋은 음식을 드셔보시기를 강추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품 여행보다는 발품여행을 하자”며 “스마트 폰에 있는 송광사, 선암사는 가짜 송광사 선암사이다. 거기에는 새벽 4시 절집마당의 예불소리와 심신을 깨우는 알싸한 공기가 없다.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순천을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권유했다.

순천지역위원회 ‘당원연수 및 단합대회’

총선 승리, 일본 경제침략 등 현 시국 타개 결의



순천지역위원회(위원장 서갑원)는 지난달 24일 순천 청암대 체육관에서 ‘당원 연수 및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오하근 도의원(순천4)이 행사 추진위원장을 맡아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서갑원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허석 순천시장,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출직과 당직자, 당원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행사

개요 설명, 축하, 총선승리다짐 퍼포먼스, 만세삼창에 이어 권역별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갑원 위원장은 “오늘 대회는 내년 총선 승리의 포문을 여는 중요한 자리이다”며 “기존 당원을 포함해 약정당원이 3만5천명에 이를 만큼 지역 내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오하근 행사추진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지역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자”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순천에서 만들자”고 말했다.

순천지역위, ‘2019 정책페스티벌’ 성료

5개 분야 열띤 분임토론…순천생협요양병원 강당(8. 12)



순천지역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당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2019 정책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오후 순천생협요양병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정책페스티벌에는 20명씩 5개조로 편성된 당원들이 농어촌문제, 이주여성 문제 및 폐교 활용, 노인복지, 청년일자리 등에 대한 열띤 토론

을 진행했다.

당원들은 토론을 통해 마련된 정책안에 대한 조별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현장투표를 실시해 1인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1위), 님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위), 폐교를 활용한 이주여성 생활형 SOC 확충(3위) 순으로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선정된 정책들은 도당 정책페스티벌을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전국 정책페스티벌에 참여한다.

서갑원 위원장은 “이번 정책페스티벌은 정당 사상 최초로 당원들이 제안한 정책을 상향식으로 전달함으로써 당원들이 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국정운영의 답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신정훈 지역위원장, 화순농민단체협의회와 농업정책 간담회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지난달 6일 화순 한농연 사무실에서 화순군농민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농민수당과 학교 과일간식 지원 및 농업재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양제진 화순군농민단체협의회장, 윤영민·이선·임영님 군의원, 김천국 농협화순군지부장, 조영균 군 농업정책과장, 농

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양제진 협의회장은 이날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과 농민의 자긍심을 높여준다”며 “농민수당 1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농민수당 지원을 건의했다.

조영균 군 농업정책과장은 “농민수당제 지급대상은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세대당 1명)로 연 120만원 내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화순 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농민단체와 함께 민주당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년산 쌀 목표가격 조속한 국회 동의, 목표가격 변경 및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 단가 인상,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강화 등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에서 민관군 거버넌스 형태의 협치 모델들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이 통로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정훈
나주·화순
지역위원장

신정훈 지역위원장, 나주역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광복 74주년 기념식 참석



신정훈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당 청년위원회와 나주청년회의소가 공동주최한 광복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했다.

신 위원장은 항일 독립운동의 함성이 깃든 나주역 학생독립운동 기념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아베의 경제침략과 함께 맞이한 올해 광복절은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며 “아무도 흔들수 없는 경제강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나주화순 신입당원 환영식 및 우상호 의원 초청 특강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오후 나주 문예회관에서 ‘2019년 신입당원 환영식 및 우상호 의원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삼석 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배기운 전 의원,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 이용빈 광주광산갑지역위원장, 사회단체 대표, 당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우상호 의원(전 원내대표)은 ‘2020 총선승리와 호남정치의 역할’이라는 특강에서 “호남정



치는 목숨을 담보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투쟁과 인권을 쫓고 평화를 찾기 위한 정치역정 속에서 잉태한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호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호남정치에 대한 특강을 듣고 더 큰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신입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제로페이 및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정책 홍보 캠페인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나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중앙로 일대 상가에서 ‘제로페이 및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책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신정훈 지역위원장과 이민준·최명수 도의원, 김선용 나주시의회 의장, 김영덕·허영우·임채수·박소준·지차남·김정숙·이대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

나주·화순지역위는 이날 수수료가 0%인 제로페이(ZERO PAY) 홍보와 아울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이장, 통장님 수당 30만원 인상, 고등학교 무상교육,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 귀농 정책 수혜, 만 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를 소개하는 정책홍보물을 배포했다.

신정훈 지역위원장, 나주시 사회복지기관 간담회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나주스포츠테마파크 소회의실에서 나주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간담회를 갖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나들이 지원과 장애인 관련조례 정비, 장애인과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나주·화순장애인위원회 송정은 목사와 이대성·이재남 시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나주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나주시청 김명숙 장애인팀장이 함께 참석했다.

신정훈 지역위원장, 사회복지·다문화위 결성 준비모임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지난달 5일 사회복지·다문화위원회 결성 첫 준비모임을 갖고 당헌당규에 규정된 사회복지와 성평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준비모임에는 김정숙 나주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위원회의 성격과 정관을 확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논의하였다.

신 위원장은 “균등한 기회부여와 사회안정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주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모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용재
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장

이용재 도의회 의장, '전남 마을이야기 박람회' 참석



이용재 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개막한 '2019 전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참석해 격려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박람회는 공동체의 뿌리인 마을에 담긴 역사와 설화, 문화자산 등 콘텐츠 전시를 통해 전남의 미래 관광자원을 개척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상을 품다, 마을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목포시 삼학도마을, 여수시 석전마을, 순천시 서동마을, 장성군 향룡마을 등 시군 대표 22개 마을의 열띤 경연으로 펼쳐졌다.

이용재 도의회 의장,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8곳 위문

이용재 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추석을 앞두고 소외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했다.

도의회는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용재 의장은 이날 광양시장에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느티나무요양원, 대한노인회광양시지회, 광양매화원 등 8곳의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를 했다.

이용재 도의회 의장, 한전공대 설립 부지 기부 행사 참석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부영빌딩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 부지 기부 행사에 참석해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재 의장은 "전남미래 인재양성과 고향발전을 위해 통 큰 기부를 결정한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도의회도 한전공대가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재 도의회 의장, 열악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토대 마련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지원조례' 대표발의

이용재 도의회 의장(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의를 통과해 열악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장은 "전남은 응급의료 기관이 부족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나 대형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와 지역외상센터 지정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5년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도 119종합상황실 내에 영상통화 응급처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파트와 주거 밀집구역 내 '구급 출동로 표지선' 설치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전남의 응급의료 인프라 현황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곳(권역외상지원센터 1곳 포함)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목포, 순천, 화순 3곳에 불과하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3개소가 있으나 지역외상센터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장은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센터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고가의 장비 도입과 전문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응급센터와 지역외상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며 "응급의료 상황 발생시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호남권 광역의회 공동 결의대회...자치분권 균형발전 토대 마련 요구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광양1)과 도의원들은 지난달 23일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했다.

호남권 4개 시·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의회가 주관한

결의대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호남권 광역의회 힘을 모으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도의회 지방분권TF 문행주 추진단장(화순1)은 경과보고를 통해 30년 만에 마련된 지

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어렵게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4개 호남권 광역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속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재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철학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회가 하루 빨리 의사일정에 전념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 꿈을 실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日아베 정부의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이용재 도의회 의장(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화이트리스트 배제 규탄대회'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주최한 규탄대회는 이 의장을 비롯

해 17개 시·도의장단이 참석해 백색국가 제외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성명을 통해 "아베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산업간 국제분업의 기초위에 형성된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행위"라고 지

적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피해 기업 지원과 함께 경제침략에 대한 승리만이 아닌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 “우리 밀·화훼산업 지속적 발전 기반 구축”

‘밀 산업 육성법’, ‘화훼산업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 밀과 화훼산업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입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년째 계류돼 있던 ‘밀 산업 육성법’ 제정안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최근 공포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 모두 어려움에 빠진 밀과 화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염원해왔던 법안으로 우리밀과 화훼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만들

어지게 됐다.

2017년 12월 대표발의한 밀 산업 육성법은 우리밀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여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밀 농가의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5년마다 밀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과 육성 지원, 정부수매 비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밀은 현재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쌀 다음 가는 제2의 주식임에도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화훼산업 법안은 화훼를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화훼진흥지역 및 전담기관 지정, 우수 화원 육성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9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올해 4월 상임위원회의 과정에서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화훼산업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틀 안에서 내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우리 밀과 화훼산업의 새로운 미래 개척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 법을 통해 양 산업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 호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장

이개호 의원, 박양우 문화부장관과 담양 죽녹원 방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달 10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담양 죽녹원을 방문해 죽녹원의 탄생 과정과 연간 700만이 찾는 담양관광의 비결을 직접 소개했다.

박 장관의 이번 담양 방문은 이개호 의원이 직접 수차례 담양을 찾아주길 당부해 성사됐다.

박 장관은 하루 종일 담양에 머물며 소재원과 죽녹원, 해동문화예술촌을 찾아 여름 휴가철 국내여행지로 손색없는 담양의 관광명소를 몸소 체험했다.

이개호 의원, 농림부 장관직 이임...8월 30일 이임식

쌀값 안정·AI 차단 등 성과, 농산물 가격하락 근본대책 등 과제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8월30일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장관은 이임식에서 1년1개월여 간 장관직을 수행하며 거뒀던 성과로 쌀 생산조정을 언급하며 “지난해 가을 산지 쌀 값(80kg)이 19만원을 넘었고, 지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다”며 “이는 지난해 농가소득이 최초로 4천만원을 넘어서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3월 이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하지만 공익형 직

불제 개편과 쌀 목표가격 결정이라는 큰 숙제를 남기게 됐고, 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근본대책 마련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지역으로 돌아가지만 농업·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 장관 이임 후 영광갯벌축제 찾아 첫 인사



이개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항에서 ‘금빛, 쪽빛, 별빛 염산빛의 여행’을 테마로 열린 제10회 영광

천일염·젓갈·갯벌축제 현장을 방문했다.

농림식품부 장관 이임 후 처음으로 영광군민에게 인사를 한

이 의원은 주말을 맞아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과 반가운 환영인사를 나누고 “영광의 맛과 맛을 마음껏 즐기고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의 천일염 생산량은 전국대비 1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간척지 갯벌의 발달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이 타지역의 천일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축제는 우리나라 황금어장인 칠산바다를 품어 안고 생산되는 특품 천일염, 명품 젓갈, 갯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칠산타워와 국가어항 인 향화도항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이개호 의원, 2019 원불교 법인절 축하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달 17일 영광군 백수읍 영산성지에서 열린 원불교 법인절 행사에 참석,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했다.

법인절은 원불교 4대 명절 중의 하나로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와 제자 9명이 나라를 잃고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기도해 나사 법계(진리의 세계)의 인정을 받았던 뜻 깊은 날이다.

이개호 의원, 화순 치유농업연구회 연찬회 특강

이개호 의원은 지난달 10일 화순치유농업연구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힐링산업과 농업·농촌’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힐링산업의 개념과 분야, 과제를 소개하며 “자연 속에서 치유기능을 가진 농업·농촌이 힐링산업의 보고(寶庫)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4조 달러(4천兆) 이상 시장규모를 가진 힐링산업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발걸음 수준으로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올해가 국내 힐링산업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데 정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승 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

김승남 위원장, 고흥 도화면 봉서마을회관 준공 축하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고흥군 도화면 봉서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마을 주민들과 환담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준공을 축하드린다”며 “쾌적한 분위기와 현대시설을 갖춘 마을회관이 어르신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어 포두면 송산마을 ‘어깨동무 나눔봉사’ 현장을 찾아 포두면 청년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격려했다.

김승남 지역위원장, ‘보성 어업인 한마음대회’ 방문, 격려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보성군 회천면 울포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보성군 어업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행복을 키워가는 바다, 미래를 꿈꾸는 바다’를 주제로 보성군어촌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김 위원장과 김철우 보성군수, 신경균 보성군의회의장, 임영수·이동현 도의원, 어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우리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며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가꾸어 나가는데 어업인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승남 지역위원장, ‘2019 통일걷기대회’ 참여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관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란 주제의 2019 통일걷기대회에 참여하였다.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 댐 부근 안동철교부터 7사단 장병들의 안내로 시작한 민통선 걷기는 수리봉(해발1056m) 정상을 넘어 칠성상회까지 총 22.5km를 걸었다.

김 위원장은 “폭염에도 함께 한 전대협 1기 동지들, 대학생들, 이시간도 평화협정을 소원하며 땀방울을 흘리며 걷고 있을 통일걷기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승남 위원장, ‘장흥수문~고흥녹동’ 연륙교 건설 촉구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생활권과 연계된 연륙교 건설해야

장흥~고흥 100km에서 10km로 10분 이내로 획기적 단축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은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장흥수문~득량도~고흥녹동’을 잇는 연륙교 건설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도당-전라남도 당정협의회 민생현안 과제 종합토론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득량만을 사이에 둔 장흥반도와 고흥반도를 최단거리로 잇는 ‘장흥수문~고흥녹동’ 구간을 ‘해안관광도로 단절구간 2단계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섬만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보다는 현존 관광자원이 많고 생활권과 연계된 연륙교를 건설하면 남해안 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장흥~고흥 간 이동거리는 100km에서 무려 90km가 줄어든 10km로 단축되어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완공 예정인 고흥~여수 간 연륙교와 건의중인 여수~경남남해 간 동서 해저터널이 연결되면 장흥수문~고흥녹동 간 연륙교 건설로 인한 경

제적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투자를 하고 나서야 한다”며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의 10%만 국내로 유인해도 부가가치는 연 2조5천억원, 고용효과는 7만3천여명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현재 추진중인 완도~고흥 간 관광벨트 사업 추진 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정책제안 토론회…장흥 목재센터

아베정권 경제침략 규탄대회도 실시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위원장 김승남)는 지난달 13일(화) 오후 2시 장흥 우드랜드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권리당원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승남 지역위원장, 이승욱 강진군수를 비롯 4

개 지역·도·군의원과 핵심당원 등 200여명의 당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식전행사로 ‘아베정권 경제침략 규탄대회’도 가졌다.

9개조로 편성된 분임토론 결과를 놓고 당원들의 현장투표를 통해 ▲장흥수문-득량도-고흥녹동간 연륙연도교 추진 ▲농어촌지역 폐교, 빈집활용 방안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이

채택되었다.

김승남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직접 만든 정책을 당원이 투표하고 당의 주요정책으로 반영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당원여러분의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김승남 위원장, 보성군·강진군과 2차 당정협의회 개최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선7기 제2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22일에는 강진군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성군은 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확보 및 각종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당과 군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협의회에는 김철우 군수를 비롯 임영수 연락소장

(도의원), 이동현 도의원, 신경균 의장, 김종표 상임고문 등 당직자와 군 간부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날 전남교직원 교육문화시설 및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 등 현안사업에 대해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이승욱 강진군수는 국립

청소년문화예술회관 건립,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 등 대해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강진군 협의회에는 이승욱 군수를 비롯 차영수 연락소장(도의원), 위성식 의장, 김용호 도의원, 차봉근 상임고문 등과 군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해남·완도·진도 정책 제안 토론회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소비할당제 도입’ 최우수 정책 선정
토론회 후 ‘일본 경제침략 규탄결의대회’ 실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소비할당제 도입’ 정책이 해남·완도·진도 정책 토론회 결과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해남·완도·진도지역위(위원장 윤재갑)는 지난달 14일 해남읍 카멜리아 웨딩홀에서 ‘정책 페스티벌 분임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소비 할당제’는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생산을 유도하고 필요 이상의 발전소 건립 시 패널티를 부여해 지자체 예산지원액을 줄이고, 반대로 소비량을 축소시킨 지자체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정책이다.

토론회에는 윤재갑 위원장과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를 마치고 ‘일본 경제침략 규탄결의대회’도 실시하였다.

당원들은 이날 문화체육, 생활안전, 지역사회 돌봄 확충, 교육, 주거환경, 지역경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기타 자유주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여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소비할당제 도입’ 정책을 영예의 1위 정책으로 선정했다.

당원들은 토론회 후 ‘NO 경제침략, 아베 강력규탄’, ‘경제보복 중단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했다.

윤재갑 위원장은 “당원들이 토론을 거쳐 만든 정책을 상향식으로 전달하는 정책 페스티벌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당원참여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윤재갑 위원장, ‘해남 남성 의용소방대 하계 단합대회’ 격려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해남군 현산면 봉동유원지에서 열린 ‘해남읍 남성 의용소방대 월례회 및 하계 단합대회’에 참석,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의용소방대 대원들께서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의 수호천사이자 안전지킴이”라며 “바쁜 생업 중에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단합대회가 대원 상호 간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재갑 위원장, ‘진도군 이장단 한마음대회’ 참석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교 광장에서 열린 ‘제8회 진도군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이장단을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행정의 최 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힘써 오신 이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풍요로운 진도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이장님들께서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대회가 이장님들의 화합과 소통, 친목의 장이 되어 단합과 진도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갑 위원장, 진도 조도면 노인대학 분교장 이취임식 참석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8월 30일 진도군 조도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조도면 노인대학 분교장이취임식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노인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 해오시다가 이임하시는 박길림 분교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새로 취임한 조창연 분교장에게 축하를 드렸다.

윤 위원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즐겁고 편안한 학교생활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갑 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촉

윤재갑 지역위원장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는 지난 21일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윤 위원장을 비롯한 143명의 자문위원단을 위촉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총괄 조정기구로 자문위원들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추진 방안을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윤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변

화를 주는 자치분권 실현에 있다”며 “주민들의 시각에서 본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좋은 정책들을 찾아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 옥매광산 광부 집단수몰 사건’ 희생자 추모제 참석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지역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옛 옥매광산터에서 열린 ‘옥매광산 광부 집단수몰사건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제주도로 끌려가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됐던 해남 옥매광산 광부들이 해방과 함께 귀향하던 중 추자도 앞바다에서 의문의 화재로 집단 수몰된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사고로 강제노역 광부 255명 중 118명이 사망했다.

윤 위원장은 “광복 74년을 맞은 현재도 식민시대의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이 땅 곳곳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사고의 진상규명과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홍보물 | 발행인, 이해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민주당사 | http://theminjoo.kr | 1577-7577 2019.09.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안보 튼튼합니다
평화경제로 경제강국, 한반도 평화

8월 25일 독도에서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하고 있는 해군 특수전사령부 요원들
사진출처: 대한민국 해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농협 301-0219-6642-11 (예금주: 더불어민주당중앙당후원회)
T. 02-780-0387-8 F. 02-780-0383 E_mail minjoosup@gmail.com

함께 웃는 한가위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

더불어민주당

함께 웃는 한가위

2019 당·정·청 추석 민생안정대책

| 걱정·부담 없는 추석 장보기!

- ✓ 선물하세요,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특판장 확대 개설 및 할인행사
- ✓ 걱정마세요, 차례상 비용
성수품 수급불안 대응 정부대책반 구성
- ✓ 예방할게요, 소비자 피해
원산지 조작, 식품위생불량 근절

| 지역경제에 활력을!

- ✓ 전통시장 할인 확대
전통시장·온라인 할인으로 지역특산물 소비 활성화
- ✓ 다양한 축제, 볼거리 많은 전통시장
가을여행주간(9.12~29) 농어촌관광, 노동자 휴가지원, 소득공제 신설
- ✓ 위기재난지역 추경예산 추석 전 집행

| 함께 따뜻한 한가위!

- ✓ 중소기업·소상공인 추석자금 96조원 지원
- ✓ 조달·하도급 대금, 부가세 환급,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원
- ✓ 연휴기간 결식어린아, 노숙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지속

|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명절!

- ✓ 편안한 귀향길, 귀경길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귀경 할인
- ✓ 안심하세요, 의료·아이돌봄 서비스 유지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
- 명절 안전사고 총력 대응체계 가동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둘러보기

내년 예산 513조5000억원!

- ✓ 일본 수출규제 적극 대응
- ✓ 경제활력 제고, 체질 개선
- ✓ 미래성장동력 확충, 혁신성장 가속



올해 대비 9.3%(43조원)
증액 확장 편성!

늘어난 예산, 이렇게 씁니다!

- 1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2.1조원)
- 2 반도체·미래차 등 혁신성장 더 빠르게(4.7조원)
- 3 수출·투자·내수 경제활력 높이기
- 4 무상교육 확대 등 포용국가 기반 다지기
- 5 국민 생활편의·안전·건강증진에 집중 투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임** 1 최고위원 공동 기자회견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 국민과 더불어 뛰겠습니다!